

대우차 매각에 즈음하여...

대우차 매각,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지루하게 끝던 대우차 매각협상이 지난 21일 GM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년 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던 대우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국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IMF사태 이후 경제적 파장이 가장 컸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완결하면서, 한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도 무형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부산 삼성자동차의 르노 인수를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매각을 어렵사리 성사시킨 경험 탓에, 이번 대우차 매각 양해각서 체결을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삼성자동차의 경우도 험값시비에 이어 국부유출론까지 등장하여 매각협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이 지역경제와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삼성차 매각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모든 협상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성자동차는 르노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부산경제를 지탱해주

는 버팀목으로 성장하였고, 외자유치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동안의 비판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되기까지 대우차 해외매각의 필요성과 대우자동차를 살려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계속 역설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삼성차의 성공적 사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대우차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또한, 부산 삼성자동차의 경험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억 달러라는 공식적인 매각 대금과 달리 실제 가격은 4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헐값매각 시비, 부평공장의 인수 제외 등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매각은 삼성차 매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다.

단순히 청산가치에 대한 대비로서 대우자동차 매각을 헐값시비로 비판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를 무시한 논리이다. 청산가치 3조원에 못 미치는 가격이라 해서 대우차 매각 협상을 실패로 돌리게 된다면, 1만5000명의 실업 문제와 이로 인한 연관산업의 몰락,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지역경제의 쇠락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한 GM으로의 매각은 미래에 주어진 가능성과 기회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GM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전 세계에 내다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기회가 열린 것으로 이번 매각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달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100여년 전 중국이 위대한 제

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한 폐쇄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의 하나이다. 바다를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 생각했던 유럽 각국이 화기로 무장한 해군을 보유하고 세계를 무대로 통상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은 외적을 막겠다고 만리장성을 해변까지 쌓아 놓는 폐쇄적 사고를 지향했던 것이다. 그 폐쇄성이 중국의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에 있다. 향후 10년 내 동아시아 자동차 수요는 15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북한-중국-인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벨트의 출발점으로 세계 자동차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GM이 부평의 기술연구소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대우차를 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날로 성장하는 중국시장과 동남아 시장에 수출됨으로써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대우자동차의 매각을 계기로 한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록 부평공장이 이번 매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GM의 장기 위탁생산 및 인수 가능성을 열어 놓아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GM판매망을 통해 순조로운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부평공장의 인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숲이 짙어지면 호랑이는 오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호랑이가 오길 바라기 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숲을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